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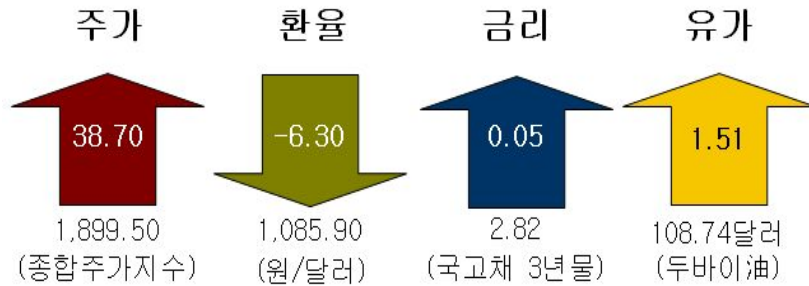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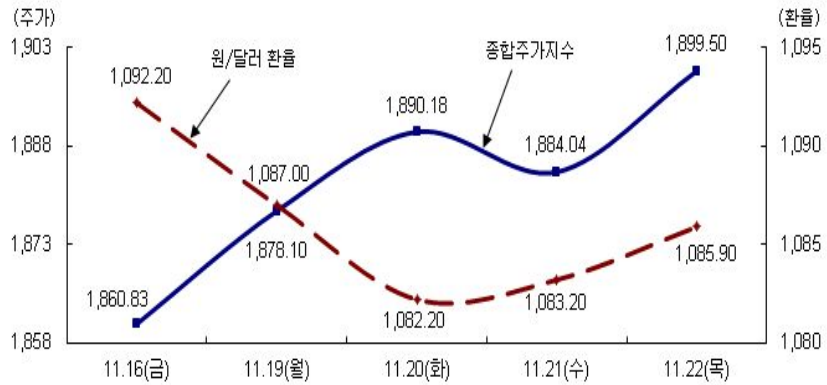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글로벌 위기 이후 산업 활력의 복원이 시급하다
- 2013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징과 주요 산업 경기 전망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16~11.22)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3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징과 주요 산업 경기 전망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4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산업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위기 이후 산업 활력의 복원이 시급하다

- 2013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징과 주요 산업 경기 전망

1. 2013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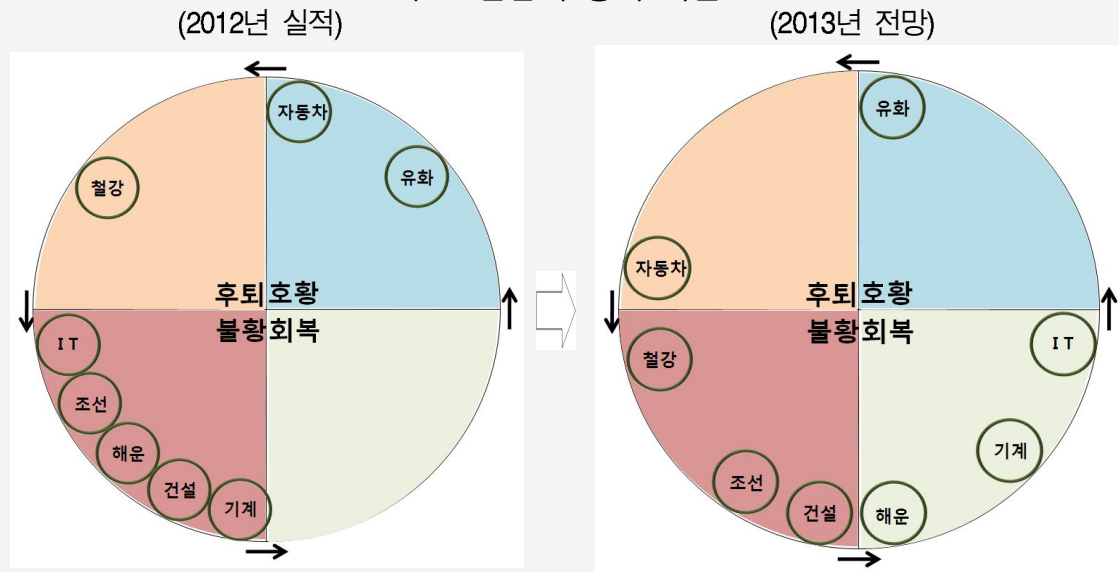
(호황) 개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산업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후퇴)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과의 경쟁 격화로 경기 하강이 예상된다.

(불황) 건설업과 조선업은 시장수요 확대 미흡, 전방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지속 등으로 장기 불황에서의 탈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 IT 산업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생산 능력 확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계 산업도 견조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개도국 중심의 수출 성장세 등으로 해운업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2. 2013년 산업 경제의 특징

2013년 국내 산업 경제는 첫째, 수출 - 제조업 내 업종간 경기 격차가 예상된다. 중국, ASEAN 등 신흥공업국들의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선진국들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IT, 유화 등은 상대적으로 수출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로지역 수출비중이 높은 가전, 선박 등의 수출은 예상외로 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진국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도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둘째, 내수 - 서비스 산업의 저속 주행이 전망된다. 경제상황 개선으로 대부분 산업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제조업의 경기 회

복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 산업은 고용의 경기 후행성, 가계 부채 문제 잠복 등으로 제조업에 비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규모 수주 산업의 불황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 및 건설업 등의 산업은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수주 심리 위축으로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 산업 모두 전방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어려워 보인다.

넷째, 신성장 동력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속 육성 대상 부문의 대대적 조정이 예상된다. 기존 주력 산업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미래 성장의 기초가 될 신성장 동력 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새정부의 입장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구(舊) 정부와 차별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신성장 동력 육성 대상 부문에 대한 평가와 최근의 여건을 반영하는 조정과정이 예상된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회복 국면 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업황 개선세도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 경기가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여 자금, 투자, 마케팅 등 대부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사점

글로벌 위기로 고갈된 산업 경제의 활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 여건의 개선이 수출 경기 회복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장별 차별화 수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고성장이 예상되는 개도국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선진국은 FTA를 활용하여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는 기회를 살려야 한다.

둘째,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 조기집행, 소비세 감면,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관광, 문화, 사업서비스 등 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수요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경기 요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장기 불황 산업은 구조 고도화 중심의 산업 정책이 요구된다.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과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산업 합리화를 통해 선진화와 고도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산업 자체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넷째, 기존 신성장 동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는 신성장 동력 육성 부문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화 가능성, 민간 참여도 등의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성장 동력 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 내 취약 부문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및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원활한 퇴출의 유도 및 지원, 신규 진입의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독자 기술력 등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 제도' 참여 확대, 금융·세제 상 우대 등의 다각적인 지원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

<2013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징>

2013년 산업 경제의 모습

- 2013년 산업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서비스업, 건설업 등 내수 산업의 상대적 부진이 예상된다.

2013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호황) 석유화학산업
- (후퇴) 자동차산업
- (불황) 건설업, 조선업, 철강산업
- (회복) 해운업, IT제조업, 기계산업

2013년 산업 경제의 특징

- 수출-제조업 내 업종간 경기 격차
 -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IT, 석유화학 등은 상대적으로 수출 경기 호조 전망
 - 유로 수출 비중이 높은 가전, 선박 등의 수출 경기는 부진 우려
- 내수서비스 산업의 저속 주행
 -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제조업의 경기 회복이 뚜렷해질 전망이나,
 -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은 고용 후행성,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
- 대규모 수주 산업의 불황 국면 장기화
 - 건설업은 민간·건축 시장의 수급 불일치 문제 등으로 경기 회복 지연 예상
 - 조선업도 공급과잉 문제로 신규 수주 물량 침체 지속 전망
-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육성대상 조정
 -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단, 새정부의 신성장 동력 육성 대상 부문에 대한 대대적 조정 과정 예상
- 중소기업의 회복 진입 지연 및 업황 개선세 미약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 침체를 벗어나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전망
 - 단, 수출 중심의 회복으로 내수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회복진입 지연 예상

시 사 점

- 첫째, 수출의 성장 견인력 극대화를 위한 시장별 차별화 수출 전략을 추진
- 둘째, 산업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노력
- 셋째, 장기 불황 산업의 구조 고도화 중심의 산업 정책 마련 시급
- 넷째, 기존 신성장 동력의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주력산업의 부상 독려
- 다섯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및 지원 병행으로 경쟁력 확보

1. 개 요

(1) 최근 국내 경기 동향

○ 경제 성장

- (경제 성장률 급락) 경제성장률은 2012년 1/4분기와 2/4분기 전년동기대비 2%대에서 추가 하락하여 3/4분기에는 1.6%로 추락
- (내수 침체) 소비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동반 감소세로 전환
 - (민간소비 부진) 2012년에 들어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내수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설비투자 급감) 1/4분기 일시적인 호조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
 - (건설투자 장기 침체) 부동산 시장 경색과 대규모 국책 사업 종료의 영향으로 장기 침체를 지속중
- (수출 감소) 수출 감소세가 지속중이나 수입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황형 무역 흑자 구조가 지속

<국내 경제 부문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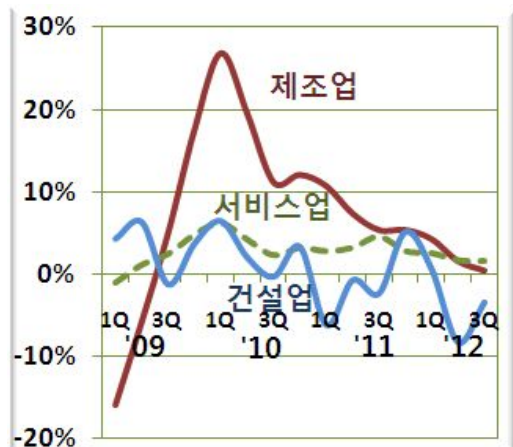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경제성장률 (%)		4.2	3.5	3.6	3.3	3.6	2.8	2.3	1.6
내수	민간소비 (%)	2.9	3.0	2.1	1.1	2.3	1.6	1.1	1.5
	건설투자 (%)	-11.0	-4.2	-4.0	-2.1	-5.0	1.5	-2.1	-0.1
	설비투자 (%)	10.3	7.7	1.2	-3.3	3.7	8.6	-3.5	-6.0
외수	경상수지 (억달러)	26	55	69	115	265	26	112	147
	무역수지 (억달러)	70	83	63	92	308	14	94	79
	수출 (억달러)	1,310	1,426	1,413	1,404	5,532	1,349	1,402	1,333
	(증가율, %)	(29.6)	(18.6)	(21.4)	(9.0)	(19.0)	(3.0)	(-1.7)	(-5.6)
	수입 (억달러)	1,239	1,343	1,349	1,313	5,244	1,335	1,308	1,254
(증가율, %)	(26.2)	(27.1)	(27.6)	(13.4)	(23.3)	(7.7)	(-2.6)	(-7.1)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주: 무역수지, 수출, 수입은 통관기준.

○ 산업 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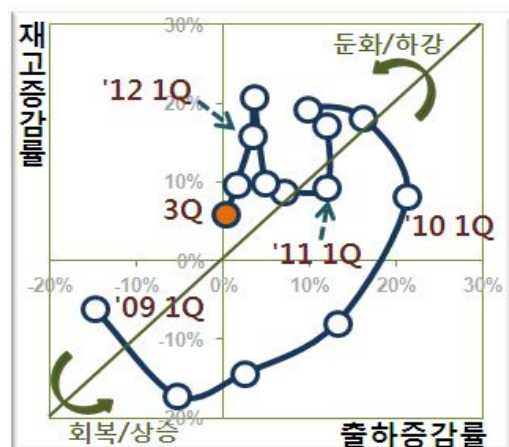
- (전산업 경기 동반 하강) 2012년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2011년에 비해 크게 약화되는 모습이며 특히 건설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침체를 지속
 - 특히, 2012년 연중으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산업 경기가 더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상고하저의 추세를 시현
- (제조업 경기 급락)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수출경기 침체로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3/4분기에는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조차도 하회
 - 다만, 재고-출하 사이클상 2012년 3/4분기 제조업은 경기 저점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즉, 출하 증가율이 하락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재고 증가율도 동시에 감소하는 경기 불황의 막바지의 모습이 관찰
- (서비스업 경기 부진) 서비스업도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낮은 생산 증가율을 기록중이나 그 증가율 하락폭은 산업 고유 특성의 영향으로 크지 않은 편
- (건설업 경기 침체) 건설업은 다른 산업들보다 침체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보다 2012년의 침체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

<제조·서비스·건설 업생산지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주: 전년동기대비 기준.

<제조업 재고-출하 지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주: 전년동기대비 기준.

(2) 2013년 대외 경제 전망¹⁾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IMF에 의하면 2013년에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2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
 - 2013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위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회복과 기저효과 등으로 1%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 미국: 주택 경기와 소비 회복, 제조업 생산 증대 등으로 2%대 성장률이 예상
 - 일본: 재건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
 - 유로존 :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생산 부진이 예상되나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0%대를 기록할 예상
 - 2013년 신흥개도국 경제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2012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성장률은 8%대 초반으로 높아질 전망
- (세계 교역 전망)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로 세계 교역량증가율은 2012년 3.2%에서 4.5%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IMF의 주요 지역 및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 >

(%)

	2010	2011	2012(E)	2013(E)		
				'12.4월 전망	'12.7월 전망	'12.10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5.1	3.8	3.3	4.1	3.9	3.6
선진국	3.0	1.6	1.3	2.0	1.9	1.5
미 국	2.4	1.8	2.2	2.4	2.3	2.1
유로지역	2.0	1.4	-0.4	0.9	0.7	0.2
일 본	4.5	-0.8	2.2	1.7	1.5	1.2
개발도상국	7.4	6.2	5.3	6.0	5.9	5.6
중 국	10.4	9.2	7.8	8.8	8.5	8.2
인 도	10.1	6.8	4.9	7.3	6.5	6.0
ASEAN5	7.0	4.5	5.4	6.2	6.1	5.8
세계교역량증가율	12.6	5.8	3.2	4.0	3.8	3.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Coping with High Debt and Sluggish Growth」 ('12.10월) 참조.

(3) 2013년 국내 경제 전망2)

○ 2013년 한국 경제는 2012년보다 회복된 3%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내수 부문

- (민간소비) 물가안정 지속, 내수 진잔책 등으로 전년보다 개선된 연간 2.9% 증가 전망

- (건설투자)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나 SOC 투자 예산 증가, 기저효과 등으로 건설투자는 2012년보다 다소 개선된 연간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미약하나마 내외수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설비 투자는 전년보다 높은 연간 5.6%를 기록할 전망

○ 대외거래

- (수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중국 수출 경기의 완만한 개선, 올해 수출증가율 급감에 따르는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수출증가율은 9.8%를 기록할 전망

- (무역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2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2) 현대경제연구원 (‘12. 10월) “2013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국내 경기 복원력 제고가 시급하다“, 현안과 과제 12-44 참조.

○ 기타

- **(고용)** 2013년 고용은 올해 고용의 큰 폭 증가에 따르는 기저효과와 성장 둔화에 따르는 경기후행적 반응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연간 실업률은 2012년과 동일한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 **(물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등으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대비 소폭 상승한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

구 분		2011	2012(E)	2013(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6	2.5	3.5
	민간소비 (%)	2.3	1.3	2.9
	건설투자 (%)	-5.0	-0.2	2.5
	설비투자 (%)	3.7	1.6	5.6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5	310	26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263	268
	수 출 (억 달러)	5,552	5,488	6,026
	(증가율, %)	19.0	-1.2	9.8
	수 입 (억 달러)	5,244	5,225	5,758
	(증가율, %)	23.3	-0.4	10.2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		4.0	2.4	2.6
실업률 (평균, %)		3.4	3.3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25	1,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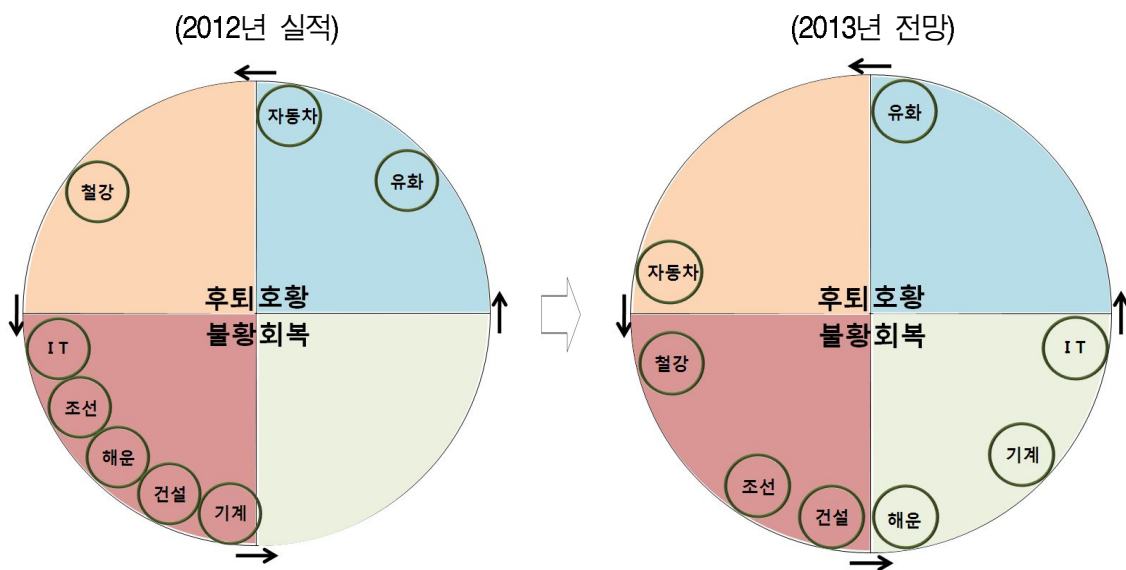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 2013년 산업 경제의 특징

(1)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호황)** 개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산업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후퇴)**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경기 하강이 예상
- **(불황)** 건설업과 조선업은 시장 수요 확대 미흡, 전방 산업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지속 등으로 불황 국면에서의 탈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강 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회복)**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경기 선도 산업인 IT 산업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생산 능력 확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계 산업도 견조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개도국 중심의 수출 성장세 등으로 해운업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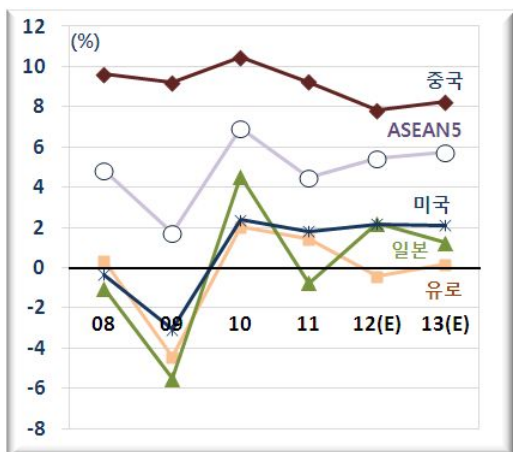
(2) 2013년 산업 경제의 특징

① 수출-제조업 내 업종간 경기 격차

○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기 회복세의 차이로 산업별 수출 경기에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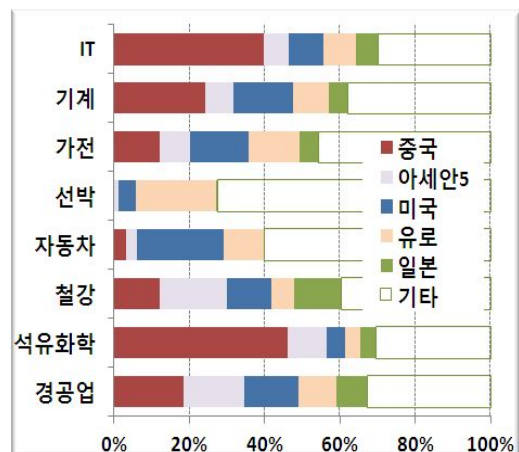
- 2013년에는 강하지는 않지만 중국, ASEAN 등 신흥공업국들의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유럽의 경우 제로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1% 내외의 저성장이 예상
- 이에 따라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IT, 석유화학 등은 상대적으로 수출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반면, 유로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가전, 선박 등의 수출 경기는 예상외로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도 제한된 수출 성장세가 예상

<주요 교역대상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산업별 주요 교역대상국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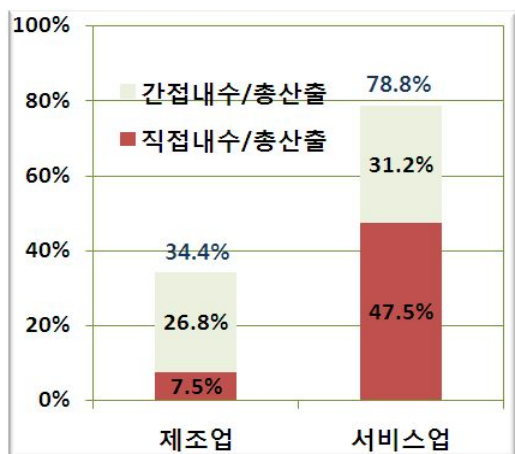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2012년 1~9월 기준.

② 내수-서비스 산업의 저속 주행

○ 경제 상황 개선으로 대부분 산업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산업이 내수 산업보다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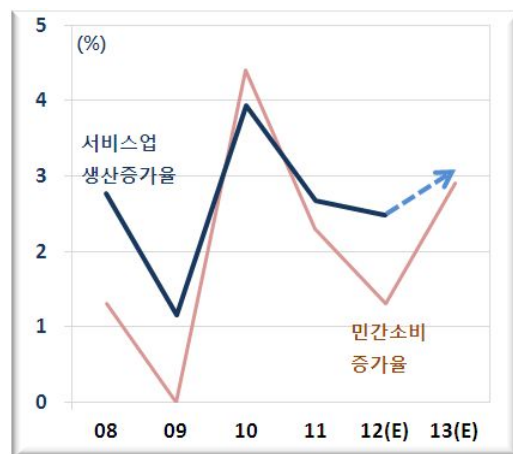
-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대외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제조업의 경기 회복이 뚜렷해질 전망
- 그러나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 산업은 고용 시장의 경기 후행성, 가계 부채 문제 잠복 등으로 실질 구매력의 빠른 확충이 어려워 보여 제조업에 비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 서비스업의 주된 연관 지표인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3년 2.9%로 경제성장률 3.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상
- 참고로 2010년 기준 제조업의 총산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4.4%(수출 비중 65.6%)인 반면, 서비스업은 78.8%(수출 비중 21.2%)에 달함

<제조·서비스업의 내수/총산출 비중>



자료: 2010년 IO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주: 간접내수는 중간재와 투자에 대하여 타산업과 전산업 내수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

<민간소비 및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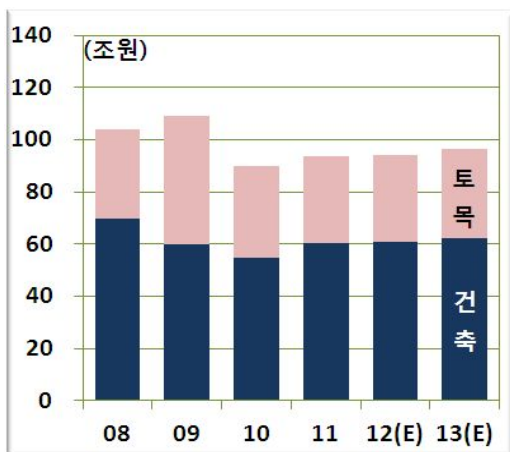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③ 대규모 수주 산업의 불황 국면 장기화

○ 대부분 산업의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조선업 및 건설업 등의 산업은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수주 심리 위축으로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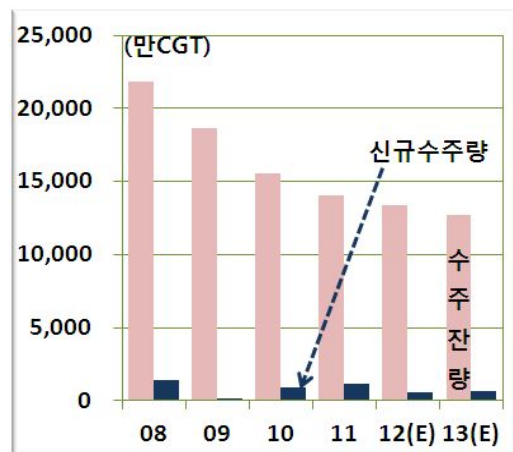
- 경제 회복이 전망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 속도가 미약한 수준일 경우, 제품의 공정기간이 길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리스크가 급증하게 됨
 - 이러한 산업의 예로 건설업과 조선업이 있으며 두 산업은 전방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존재
- 건설업은 공공·토목 부문 경기가 SOC 투자 확대로 소폭 개선될 가능성도 있으나, 민간·건축 부문이 시장 수급 불일치 문제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조선업은 고효율 선박에 대한 대체 수요와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신규수주가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 상선의 경우 기존 물량에 대한 선사들의 선박인도 조절 등으로 신규 수주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공종별 건설수주액 전망>



자료: 실적치 통계청, 전망치 현경연.
주: 경상금액 기준.

<조선업 수주잔량 전망>



자료: 실적치 한국조선협회, 전망치 현경연.

④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육성대상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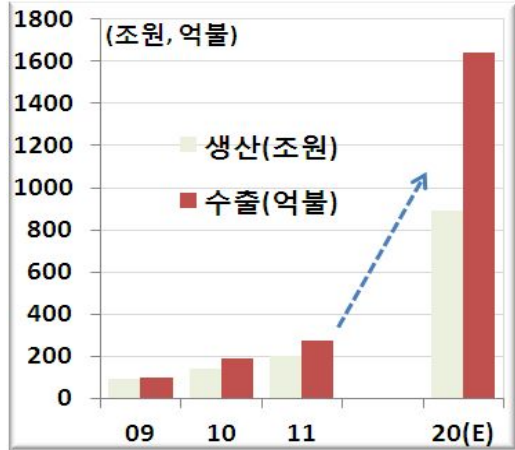
○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신성장 동력 부문에 대한 조정이 예상

- 기존 주력 산업의 한계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미래 성장잠재력의 기초가 될 신성장 동력 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녹색기술·첨단융합 분야³⁾의 생산은 2011년 200조 원에서 2020년에는 893조 원으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수출액도 272억 달러에서 1,63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신성장 동력 부문과 관련이 깊은 R&D 투자 예산도 2012년 총 160.2조 원에서 2013년 168.7조 원으로 크게 증가
- 다만,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내놓는 상당수 정책들이 구(舊) 정부와 차별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신성장 동력 육성 대상 부문에 대한 평가와 최근의 여건을 반영하는 대대적 조정 과정이 예상
 - 과거 추진되었던 G7 프로젝트(1992~2001년)⁴⁾, 차세대성장동력 육성 사업(2003~07년),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2009~13년)이 정부의 임기 기간별로 구분되었던 것이 사실
 - 기존 육성 대상에서 탈락되는 분야는 시장이 형성되어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였거나, 그동안의 성과 미흡으로 사업 추진을 지속할 근거가 취약한 분야들이 될 것으로 판단
 - 한편, 환경·에너지 관련 육성 부문은 세계 산업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새정부에서도 상당수 육성 부문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3) 현 정부의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은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대 분야는 ① 녹색기술산업, ② 첨단융합산업, ③ 고부가서비스산업임. 이중 녹색기술산업에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부문이 포함되며, 첨단융합산업에는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부문이 포함.

4) 공식 명칭은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 수준 진입을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

<녹색기술·첨단융합 분야 생산 및 수출>



자료: 지식경제부.

<2013년 R&D 관련 정부 예산(案)>

(조 원)	'12 예산	'13 예산안
기초·나노	18.8	20.7
에너지·환경	24.5	24.8
우주항공·생명 등	44.5	43.7
기계·제조·공정	17.0	16.2
정보·전자	23.8	24.5
기타	31.7	38.9
합 계	160.2	168.7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 예산안.

【참고】 시기별 신산업 정책의 육성 부문

<주요 신산업 육성 정책별 부문 비교 >

G7 프로젝트 (1992~2001년)	차세대성장동력 육성 사업 (2003~07년)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 (2009~13년)
신에너지기술	미래형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차세대원자로	디지털TV/방송	탄소저감에너지
차세대초전도토키막장치	디스플레이	고도 물처리
환경공학기술	차세대이동통신	LED 응용
차세대자동차	지능형홈네트워크	그린수송시스템
고속전철	지능형로봇	첨단그린도시
고선명TV	바이오신약/장기	방송통신융합산업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디지털컨텐츠/SW솔루션	IT융합시스템
광대역종합통신망(B-ISDN)	차세대전지	로봇 응용
첨단생산시스템	차세대반도체	신소재·나노융합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신기능생물소재		글로벌 헬스케어
신약·신농약		콘텐츠·소프트웨어
의료공학		고부가 식품산업
차세대반도체		글로벌 교육서비스
주문형반도체		녹색 금융
초소형정밀기계		MICE·관광
감성공학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

⑤ 중소기업의 회복 진입 지연 및 업황 개선세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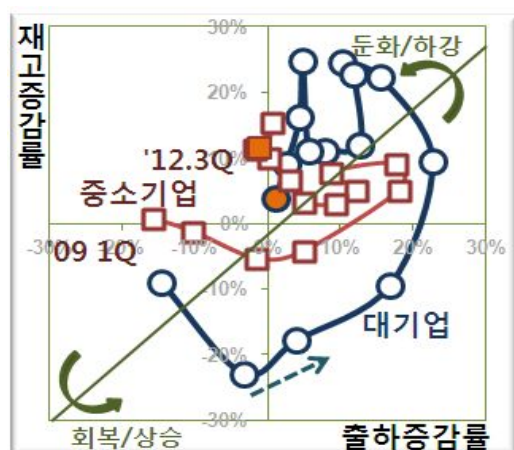
○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이 예상되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회복 국면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회복 강도도 미약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3/4분기 현재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 침체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경기 부진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
 - 2012년 3/4분기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대기업 생산은 증가세를 유지
 - 재고-출하 사이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회복 국면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
-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으로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 국면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회복 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으로 전망
 - 수출이 내수 경기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 경기가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특히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여 자금, 투자, 마케팅 등 대부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대·중소 기업의 생산 증감률>



<대·중소 기업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내수 및 출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4. 시사점

첫째, 대외 여건의 개선이 수출 경기 회복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장별 차별화 수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높아 선진국 지역보다 수출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임
 -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경기부양책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수요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마이너 시장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의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EU FTA 및 한-미 FTA를 통해 유럽 및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FTA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원산지검증시스템 도입과 기업들의 인증심사를 위한 지원 및 관련 인력 확충이 필요함
 - 특히, 미약한 경기 회복세로 선진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통상 규제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신속한 확보, 분석,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요구됨

둘째, 산업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2013년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내수 부문의 부진으로 그 회복 강도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내수 경기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2013년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기금별 추가 지출 소요 발굴,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의 추진도 고려
- 또한 산업별 주력 제품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미시적 차원의 노력도 요구
- 한편, 관광, 문화, 사업 서비스 등 내수 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의 진작 노력이 요구됨

셋째, 경기 요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장기 불황 산업은 산업 구조 고도화 중심의 산업 정책이 요구된다.

- 우선 장기 불황 국면에 있는 건설업은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업종 선진화와 고도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 대두
 -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 등의 단기적인 대책을 지양하고 건설업의 영세성과 후진성 극복을 통한 산업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 고도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근본적인 산업 정책이 요구
 - 그러나 동시에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 주택 매매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도 노력을 경주
- 구조적인 글로벌 수급 문제에 직면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저부가-물량 중심에서 고부가-고기술훈 중심의 산업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
 - 조선 업체들의 구조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나 과거 70년대의 일본과 같이 기술 개발에도 소홀히 할 경우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화할 가능성이 존재
 - 또한, 해양플랜트, 친환경-고효율 선박 등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기술과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은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

넷째, 기존 신성장 동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급락은 기존 주력 산업들의 성숙화에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기에, 이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육성 단계를 넘어 투자와 고용이 유인되는 산업화 단계의 신성장 산업이 필요한 상황
- 이에 기존 신성장 동력 육성 부문에 대하여 그 범위를 집약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기로 판단
- 신성장 동력 부문의 구조조정은 산업화 가능성, 민간 참여도 등의 보다 현실적인 기준에 의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근의 세계 신기술 및 시장 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부문의 발굴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

다섯째, 경제 내 취약 부문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및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우선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자들에 대한 원활한 퇴출을 유도 및 지원하고 새로운 진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정책이 요구됨
- 한편, 독자 기술력 등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 제도’ 참여 확대, 금융·세제 상 우대 등의 다각적인 지원 확대 노력도 필요함
- 또한 만성적이 아닌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상 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요구됨 **HRI**

【부록】 산업별 최근 경기 동향과 2013년 전망

① 철강산업	17
② 석유화학산업	20
③ 기계산업	23
④ 자동차산업	26
⑤ 조선업	29
⑥ IT제조업	32
⑦ 해운업	35
⑧ 건설업	38

- (2013년 전망) 철강 수요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 지속으로 업황 경기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수요 부진)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큰 폭의 내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해외 수요 증가 역시 제한적으로 수출 증감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조선 산업의 신규 수주 부진과 후판 사용이 적은 해양 플랜트 위주의 수주 확대, 건설 투자의 제한적 회복 등으로 내수는 소폭 증가가 예상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미국,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수출 수요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현지 제품의 우선 조달이 예상되어 한국의 수출에 미치게 될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
 - (생산 증가 및 수입 감소)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의 생산 능력 확충 및 생산량 증대는 수입 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
 - 국내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로의 보수 및 신규 고로의 완성에 따른 생산 능력 확충이 예정되어 있어 공급 능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국내 생산 물량의 확대와 해외 저가 제품에 대한 수입 등으로 제품 가격 하락세가 예상

< 철강 산업 전망 >

(단위: 만 톤)

구 분	2011	2012(E)	2013(E)	
총수요	8,548 (11%)	8,458 (△1%)	8,740 (3%)	
	내수	5,639 (8%)	5,386 (△4%)	5,530 (3%)
	수출	2,909 (17%)	3,072 (6%)	3,210 (4%)
총공급	9,540 (5%)	9,392 (△2%)	9,660 (3%)	
	생산	7,228 (10%)	7,340 (2%)	7,670 (4%)
	수입	2,312 (△8%)	2,051 (△11%)	1,990 (△3%)

자료: 2011년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2012년, 201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재 소재가 포함됨.

- (주요 현안) 수익성 악화 우려, 일본 업체의 경쟁력 제고, 동남아시아 시장의 부상 등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
 - (수익성 악화 우려) 공급 과잉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격 상승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 2013년에도 수익성 개선은 불투명
 - 한국의 생산 능력이 확충되는 가운데 중국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 역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동아시아의 철강 제품 과잉 생산 문제는 지속
 -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생산 원가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큰 폭의 철강제품 수요 확대와 가격인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특히 철강 제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의 인상이 쉽지 않아 한국 업체들은 내수 판매 증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긴 힘들 전망
 - (일본 업체의 경쟁력 제고) 일본 업체들의 합병으로 세계 2위의 철강 업체가 탄생하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강자가 등장
 - 2012년 10월 일본의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의 합병으로 신일철주금이 설립되면서 조강생산능력으로 세계 2위이자 동아시아 최대의 철강 업체가 탄생
 - 기존의 품질 경쟁력을 보유했던 일본 업체가 2013년에는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원료 공급 협상력 제고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것으로 예상
 - 일본의 대형 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펼칠 경우 한국 업체들은 품질 및 가격 경쟁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
 - (동남아시아 시장의 부상) 부진한 동북아시아 시장의 대안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한·중·일 업체들의 수출 경쟁이 심화
 -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철강 생산 증대 및 내수 부진의 상황을 겪으면서 수출량 증대가 불가피
 - 중량이 커서 장거리 운송이 쉽지 않은 철강 제품의 특성 상 수요 증가에 비해 생산 시설이 부족한 동남아시아는 동북아시아 시장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
 - 결국 동남아시아 철강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중·일 업체들의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한 수익성 확보 노력이 이슈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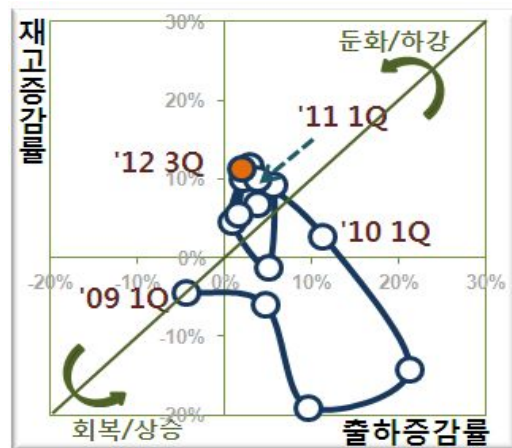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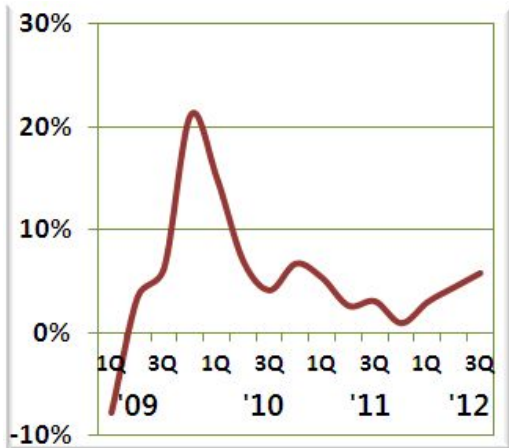
② 석유화학산업

국내 경기 회복으로 내수 증가세 유지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수요 증대가 예상되므로 업황 경기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전망

○ (2012년 경기 동향)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경기는 부진한 모습

- (생산 및 재고·출하)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가율은 2011년 4/4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출하 역시 상승세 유지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1년 4/4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2012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
 - 그러나 생산과 달리 출하 증감률과 재고 증감률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여전히 침체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양상
- (수출입) 1~9월 중 석유화학제품 수출 물량 증가율은 2011년 동기간대비 6.9%이나, 수출 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은 0.5% 증가하는 데 불과)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6) MTI 기준 21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을 의미함.

- (2013년 전망) 국내 경기 회복으로 내수 증가세 유지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수요 증대가 예상되어 업황 경기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전망
 - (내수 증가세 유지) 생산 및 출하량 측면에서 2012년보다 다소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경기 둔화 완화로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 등 핵심 전방산업⁷⁾의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다만 건설업 등 일부 전방 산업의 침체 지속은 내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
 - (수출 증가세 회복) 공급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중국 등 주력 수출시장의 수요는 개선이 예상
 - 중동과 중국 등의 신규 설비 증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폭의 공급 증가 전망
 - 반면에 경기 회복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시장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원화가치 및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유럽 등 선진국 경기회복의 지연 가능성 상존은 수출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상존

< 석유화학산업 전망 >

구 분	2011	2012(E)	2013(E)
생 산 (만톤)	2,137 (0%)	2,170 (2%)	2,250 (4%)
수 출 (만톤)	1,163 (△2%)	1,170 (1%)	1,220 (4%)
수 입 (만톤)	94 (11%)	100 (6%)	107 (7%)
내 수 (만톤)	1,056 (3%)	1,080 (2%)	1,120 (4%)

자료: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함.

7)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전방산업으로는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등이 있음.

- (주요 현안) 천연가스 시대 도래, 현지화·차별화 전략, 환경 친화적 기업문화의 형성이 주요 이슈로 대두
 - (천연가스 시대의 도래) 셰일가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석유화학산업의 주원료가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이동함에 따라 업계 재편 가속화
 - 전후방 산업들과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셰일가스와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및 전력발전분야 진출을 동시에 모색하는 글로벌 기업 간 경쟁 격화
 - 국내 기업은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석유 기반의 나프타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대체 방안 강구
 - 경제성이 입증된 에탄가스 이외에도 셰일가스에 포함된 다양한 가스들⁸⁾을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
 - (차별화·현지화 전략) 국내 기업은 북미·중동의 저가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원료값이 저렴한 지역에 현지 공장 설립 추진
 - 중동이나 북미지역에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직접 진출하여 현지의 저렴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 모색
 - 천연가스에 기반을 둔 에탄으로는 생산이 어려운 非에틸렌계열의 프로필렌이나 부타디엔 생산에 주력하여 차별화 시도
 -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복합소재와 자동차소재, 배터리분야 등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역량 강화
 - (환경 친화적 기업 문화의 형성)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 탄소배출 관리 강화를 통해 친환경적 기업 문화 형성
 - 국내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요 타깃 산업인 석유화학 업종내의 비용 증가와 채산성 악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
 - 이에 따라 환경문제와 기업의 전사적 전략을 연계하여 탄소저감 사업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

8) 셰일가스의 주요 성분은 메탄, 부탄, 프로판, 에탄 등을 의미함.

③ 기계산업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와 이에 따른 국내 경기 개선, 해외 기계 수요 증가 등으로 기계 산업의 수출 및 생산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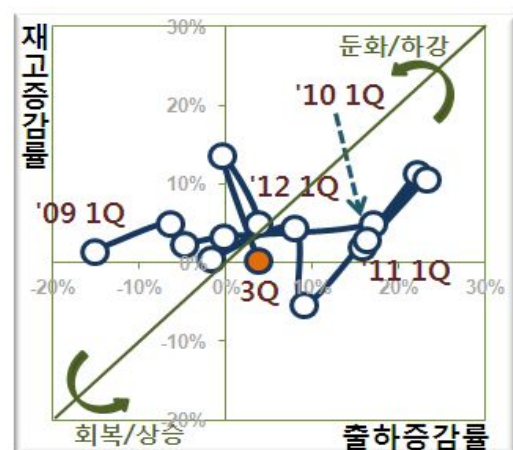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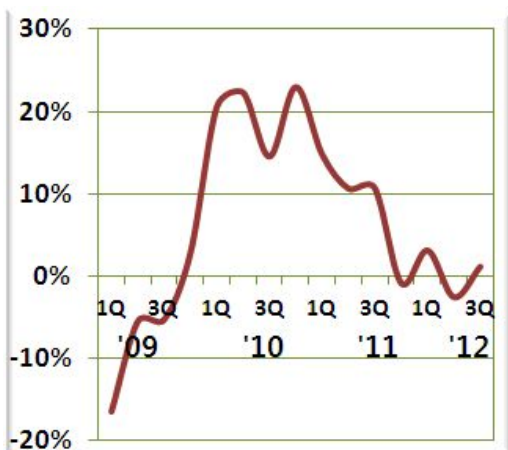
○ (2012년 경기 동향) 글로벌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설비 투자 위축으로 기계 산업 생산과 수출 침체가 지속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고·출하 사이클 상으로는 회복 국면으로 진입
 -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국내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기계 산업의 낮은 생산 증가율이 지속
 - 재고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출하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어 기계 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수출) 중국 긴축의 영향으로 對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유럽 재정난에 따른 유로 및 신흥국 수출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기계 산업 수출은 매우 부진한 모습을 시현

<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3년 전망) 대내외 경기 개선 및 해외 수요 확대에 따라 수출 및 생산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생산) 글로벌 경기 개선 및 해외 기계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회복과 국내 설비투자 증가로 기계 산업 생산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과 미국의 기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계 산업 수출이 확대될 전망
- 내외수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해 국내 기계 수요 또한 확대될 전망

- (수출입) 미국의 재해 복구와 중국의 경기부양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기계 산업 수출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발생한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로 복구를 위한 기계 수요 확대와 더불어 한-미 FTA 효과로 인해 對미국 기계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중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침체되었던 對중국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들의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 확대도 기계 산업 수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국내 경기회복과 설비투자 확대로 인해 기계 수입 역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기계 산업 전망 >

구 분	2011	2012(E)	2013(E)
생 산 (조원)	103 (11%)	106 (4%)	115 (9%)
수 출 (억불)	432 (26%)	445 (3%)	507 (14%)
수 입 (억불)	360 (4%)	358 (-1%)	397 (11%)

자료: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1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품목분류 개편으로 과거 수치와 동일하지 않음.

- (주요 현안)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IT융합 부문 투자 확대, 셰일가스 개발 관련 기계 수요 증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점유율 확보를 위해 주요 기계 수출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기 개선이 미약한 가운데 중국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라 2013년 기계 수요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독일, 일본, 대만 등 주요 기계 생산국들의 적극적인 중국 시장 공략이 예상
 - 대만의 경우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이후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對중국 기계 수출이 크게 증가
 - 더욱이 중국내 자국 업체들의 또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기술력과 자국 기업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
 - (IT융합 부문 투자 확대) 제품 기능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계 산업에서의 IT융합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현재의 기계 산업은 과거 재래식 생산방식을 탈피, 디지털화, 로봇화, 인공지능화, 무인자동화 등 IT융합 기술을 접목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국내 기계 산업에서도 지능형 머신과 같은 IT융합 제품, 네트워킹을 이용한 서비스, 생산공정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IT융합이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술 수준은 세계 수준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 기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IT융합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
 - (셰일가스 개발 관련 기계 수요 증가)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채굴 및 생산에 필요한 기계 수출 확대가 기대
 - 2000년대 고유가와 채굴기술 발전에 따라 개발되기 시작한 셰일가스가 최근 경제성을 가진 대체에너지로 부상
 - 특히 매장량이 높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감속기, 가스압축기, 굴삭기 등 국내 기계 산업의 수요 증대가 기대됨
 - 장기적으로는 셰일 가스 중심의 에너지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기계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됨

④ 자동차산업

세계경제의 회복세 미흡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내수도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경기 후퇴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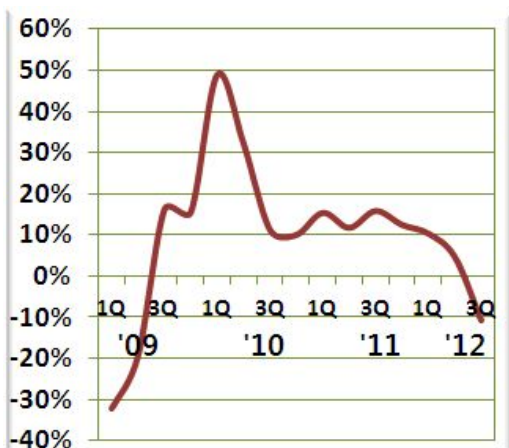
○ (2012년 경기 동향) 글로벌 수요 둔화로 내수 및 수출 동반 하락

- (생산 및 재고·출하) 내수 및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생산은 감소세 전환
 - 2012년 자동차산업 생산 지수는 1/4분기, 2/4분기에는 각각 10.5%, 4.8% 증가하였으나 3/4분기에는 -10.5%로 하락
 - 재고-출하 사이클 상으로 2012년 3/4분기 현재 출하와 재고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되어 불황 국면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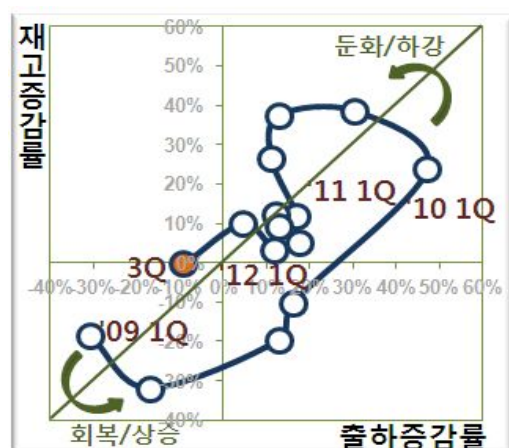
- (수출)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으로 선진국의 수요가 감소하여 자동차 수출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
 - 2012년 3/4분기까지 자동차 수출량은 234만대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
 - 분기별로는 1/4분기, 2/4분기에는 각각 21%, 2% 증가하였으나 3/4분기에는 -13%로 감소세 전환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3년 전망) 세계경제의 회복세 미흡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내수도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경기 후퇴가 전망

- (수출 부진 지속)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흡한 가운데 특히 주력 수출 시장인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높아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자동차 수출의 본격적인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고유가 지속 등은 신흥국 중산층의 신차 구매 수요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

- (제한적인 내수 회복) 경기 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13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대내외 경기 침체에 시달렸던 2012년보다는 제한적이거나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고용 부진, 가계 부채 문제 지속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워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환율 하락, 수입차 업체들의 적극적 마케팅 등으로 수입차 국내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

< 자동차산업 전망 >

구 분	2011	2012(E)	2013(E)
생 산 (만대)	465 (9%)	450 (-3%)	460 (2%)
내 수 (만대)	150 (1%)	140 (-7%)	145 (4%)
수 출 (만대)	315 (14%)	310 (-1%)	315 (2%)
수 입 (만대)	11 (16%)	13 (22%)	15 (15%)

자료: 실적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내수는 국산차 판매 기준, 수출은 통관 기준, 수입차는 신규 등록 기준.

- (주요 현안) 미국 빅3의 부활, 연비 경쟁 가열, 현지 생산 체제 강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미국 빅3의 부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빅3의 위상이 상당 수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이후 GM, 크라이슬러, 포드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한 체질 개선, M&A 및 기술제휴, 전미자동차노조의 협조 등으로 경쟁력 향상
 -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정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
 - (연비 경쟁 가열) 세계 각국의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 및 고유가의 영향으로 업체 간 연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기존 자동차 대비 연비가 높은 하이브리드차 출시가 확대되면서 친환경차의 연비 및 가격경쟁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할 전망
 - 미국 시장에서의 국산차의 연비 문제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2013년 유럽 및 일본산 자동차와의 점유율 경쟁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한편 메이저 업체 간 연비 경쟁이 강화되면서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의 연구 개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지 생산체제 강화) 유럽, 일본의 생산시설 축소 및 북미, 중국, 인도, 브라질의 생산시설 확대로 글로벌 자동차 생산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유럽 재정위기 지속, 일본의 수요침체 및 엔고에 따른 실적 악화로 유럽 및 일본 지역의 생산 시설이 축소될 전망
 - 주요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북미 현지 생산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신흥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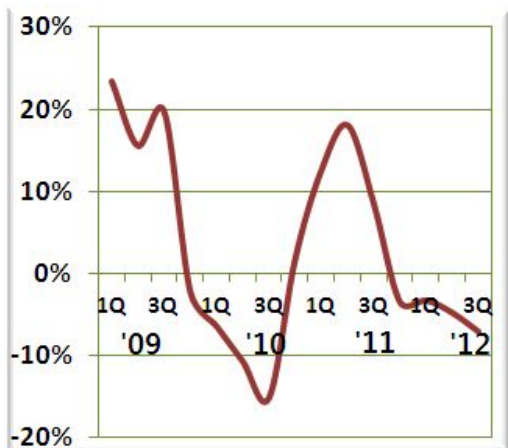
⑤ 조선업

2013년 조선업은 전 부문에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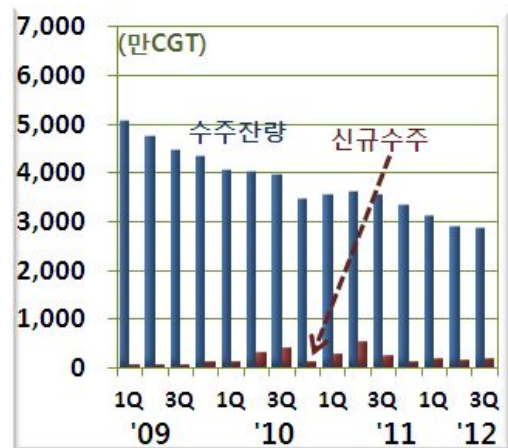
○ (2012년 경기 동향) 2011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모습

- (생산) 2012년 조선업 경기는 2011년 4/4분기부터 시작된 침체를 지속중
 - 2011년 4/4분기부터 시작된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생산지수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2012년 3/4분기까지도 지속
 - 2012년에 들어 생산지수 감소폭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2012년 내에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수주) 신규 수주는 일반 상선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에서도 크게 감소
 - 한국조선협회 9개 회원사의 2012년 9월까지의 누적 신규 수주규모는 2011년의 1,037만 CGT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03만 CGT 기록
 - 한편 2011년 상반기까지 9개 회원사가 수주한 드릴쉽은 21척, 85만 8,000 CGT이었으나, 2012년은 7척, 28만 7,000 CGT에 불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국내 조선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조선협회.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은 9개 회원사 기준.

9)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2013년 전망) 일반 상선 부문에서 미약하나 수주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주량)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부문에서 고효율 선박에 대한 대체수요와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수주에서 소폭 증가세 예상
 - 저공해, 고효율 선박에 대한 대체수요가 세계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형조선사들에 대한 수주 증가로 연결
 - 심해 시추의 경제성이 유지되면서 시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국제 유가의 전년대비 약보합세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 (건조량) 전반적인 산업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연기한 신조 선박 인도량이 2013년에 집중되면서 선박 건조량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선박건조는 계약에서 이행까지 통상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2013년의 건조 물량의 상당 부분은 2011년 및 그 이전 수주 물량으로 판단
 - 선사들이 악화된 해운 경기를 피해가고자 신조 선박의 인수시기를 조절한 바 있는데 그 물량들이 2013년 건조 물량에 상당 부분을 차지
 - (수출) 전방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가 지속되어 선사들의 인도 지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수출 규모는 2012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2013년에도 선사들의 인도 지연 요구나 인도 거부 문제가 부상할 우려가 있어 수출 규모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

< 조선업 전망 >

	2011	2012(E)	2013(E)
신규수주량 (만 CGT)	1,163 (43%)	600 (△48%)	650 (8%)
건조량 (만 CGT)	1,356 (7%)	1,300 (△4%)	1,300 (0%)
수출규모 (억 달러)	566 (15%)	390 (△31%)	400 (△3%)

자료: 실적치는 한국조선협회(수주량, 건조량은 회원사 9개 합계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부가 필요성 증대,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 기반 약화, 유럽 조선 업계의 부활 등이 주요 현안을 부상할 전망
 - (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부가 필요성 증대) 해양플랜트분야의 낮은 국산화율로 기업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가 미약한 문제점이 존재
 - 전체 해양설비 중 기자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반잠수식 시추선의 최소 35.7%에서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의 최대 57.1%에 이르는데 이중 50%이상을 차지하는 기기장비 및 배관재는 국산화율이 평균 20% 이하
 -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은 국산화비율이 90%이상 그리고 LNG선은 80%이상인어서 해양플랜트의 관련 기업의 수익률과 무역수지에 대한 기여는 이들보다 크게 낮을 수밖에 없음
 -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 기반 약화) 조선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과거 일본과 같이 조선업의 산업 기반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증대
 - 70년대 당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조선업계는 1차 석유위기가 발생하자 대규모 구조조정과 기술 개발에 소홀
 - 이에 따라 90년대 해양플랜트 등 새로운 형태의 선박 수요가 증가했지만 일본 조선 업계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한국에 선두를 내어줌
 - 현재 조선업계는 중소기업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이 대기업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쟁력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증대
 - (유럽 조선업계의 부활) 유럽의 전통적 조선 강국들이 혁신적인 모습의 선박 개발로 새로운 원천 기술을 획득하면서 부활할 것으로 전망
 - 조선업에서 역사적으로 혁신자 역할을 했던 북유럽 지역 조선업계가 다양성, 효율성, 환경친화성의 선박 개발을 주도
 - 노르웨이의 파스타드(Farsta)는 영국의 롤스로이스(Rolls-Royce)와 함께 파도를 이전처럼 올라타지 않고 뚫고 움직이는 선박을 설계함으로써 연료소비 절감, 선체노후화 방지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커다란 발전 달성
 - 이러한 선박 설계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주도해 새로운 원천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 선박 중심의 시장에서 부활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

⑥ IT 제조업

신흥시장이 세계 IT 소비 시장 견인축 역할을 함에 따라 IT 산업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나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는 선진국 경제의 상대적 부진으로 제한적인 회복세가 예상

○ (2012년 경기 동향) 2012년 IT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 위치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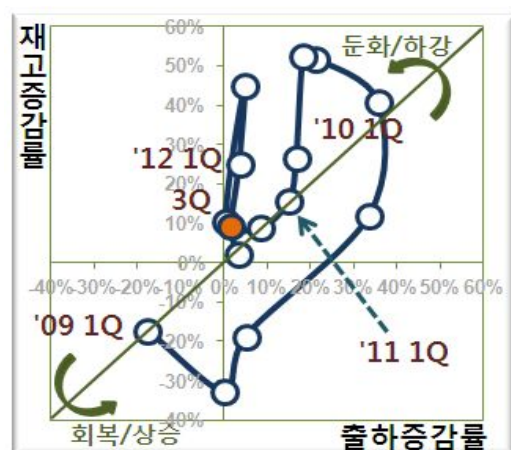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IT제조업은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의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
 -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은 2011년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2년 2/4분기 이후 소폭 반등
 - 재고-출하 사이클 상 2012년 3/4분기 현재 여전히 경기 침체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 다만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임박
- (부문별 경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성장세가 반도체 부문의 부진을 상쇄하는 모습
 - 메모리반도체는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생산과 수출이 모두 여전히 부진
 - 휴대폰은 스마트폰 세계 시장 1위 달성 등의 선전으로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 부문의 실적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

< I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12년 2/4분기는 4~5월 증가율 평균).

- (2013년 전망) 신흥시장이 세계 IT 소비 시장 견인축 역할을 함에 따라 IT 산업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나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는 선진국 경제의 상대적 부진으로 제한적인 회복세가 예상
- 아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 생산 확대로 IT제조업의 생산, 수출의 성장은 일정 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신흥시장의 세계 IT 제품 수요 견인 및 우리나라 IT 제품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의 내수 부양 정책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 *중국(홍콩 포함) IT 수출 비중 : 2011년 47.2%, 2012년(1~9월) 50.3%
 - 선진국 수요 위축,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 및 생산 확대로 IT제조업의 국내 생산 및 수출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해외생산비중 : 2011년 1/4분기 27.3% → 2012년 2/4분기 79.6%
- 주요 부문별로는 스마트 기기 부문이 전망 산업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 패널 등 관련 후방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스마트기기 수요 증가로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쟁업체 감소 및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도 수출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 **디스플레이 패널**: 선진국의 경기 부진 및 LCD TV의 높은 보급률, PC 시장 침체 등으로 신흥국 LCD TV, 모바일 패널 및 고해상도·OLED·3D등 차세대 패널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
 - **휴대폰**: 선진국 시장은 LTE폰 등 프리미엄급 제품 교체 수요 발생, 신흥국 시장은 중저가 스마트폰의 보급 가속화에 따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

< IT제조업 전망 >

구 분	2011	2012(E)	2013(E)
생산 (조 원)	301 (2%)	304 (1%)	312 (3%)
수출 (억 달러)	1,566 (2%)	1,560 (0%)	1,625 (4%)
수입 (억 달러)	815 (8%)	780 (△4%)	822 (5%)

자료: 실적치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T제조는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를 포함.

- (주요 현안) 특허 전쟁 본격화, OS 경쟁 심화, 스마트 홈 시대로의 이행 등이 IT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특허 전쟁 본격화) 글로벌 기업들과 지식 재산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제품 경쟁에 이어 특허권 전쟁이 본격화
 - 특허가 경쟁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기술력, 아이디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의 성격에서 경쟁자 견제를 위한 공격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추세
 - 한국 기업의 시장 지배력 견제, 지속적 혁신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소송은 201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증대
 - (OS 경쟁 심화) 윈도우8의 출시로 인해 iOS와 Android 양강 구도였던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 재점화
 - 2012년 10월 출시된 윈도우8은 기존 PC와 태블릿 PC를 아우르는 통합형 OS로 기존 PC 업체들의 태블릿 시장 진출의 발판 역할을 함에 따라 모바일 OS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전망
 - 콘텐츠 생산 기능을 강화한 윈도우8의 오피스 기능에 따른 기기 교체 수요 및 기업 신규 수요가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스마트 홈 시대로의 이행) 가전 분야의 스마트화 추세가 확산되며 스마트 홈 시대가 본격화
 - 스마트 티비로 시작된 멀티미디어 가전 분야의 스마트화 추세가 셋톱박스, 카메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같은 생활가전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멀티미디어 가전은 '콘텐츠'가, 생활 가전은 '저전력 시스템'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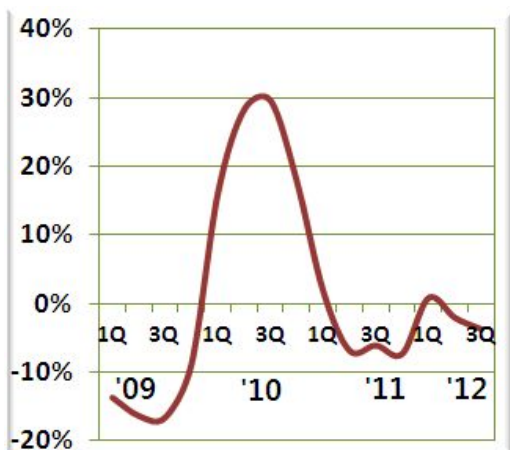
⑦ 해운업

해운업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설이 완화되면서 물동량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시장 내 공급 과잉 문제 지속으로 운임 단가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경기 동향)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업종 경기 부진이 지속

- (산업생산지수) 2분기 연속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가율이 감소세 기록
 -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2년 1/4분기 0.9%의 증가세를 보인 후 2/4분기와 3/4분기에 감소세를 기록
- (해운 시황) 2012년에 들어 컨테이너 부문과 벌크 부문 모두 물동량의 약세가 지속중이나 벌크 부문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
 - 컨테이너 HRCI(용선지수)는 연초의 급락 이후 큰 변동 없이 낮은 수준을 지속 중
 - 벌크선 BDI(용선지수)는 연중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며 방향성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판단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



< BDI 및 HRCI 추이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주: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3년 전망) 세계 경제 회복으로 물동량은 증가하겠으나 선박 공급 과잉으로 업종 상황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컨테이너선)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 가운데 신흥개도국의 성장으로 물동량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
 - 선진 지역 경기가 안정되고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완화되면서 물동량은 전년 대비 증가 예상
 - 다만 선박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못해 본격적인 운임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벌크선) 본격적인 수급 회복은 어려우나 선박 공급 속도가 다소 둔화되면서 미약하게나마 업황 개선이 전망
 - 중국 등 개도국의 경기 부양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벌크 수요도 완만한 성장 예상
 - 한편 신규 선박 증가세가 완화되고 지속적 폐선이 이루어지면서 소폭의 업종 수급 개선이 기대
 - (유조선) 세계 경제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의 급격한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아 유조선 상황은 2012년 수준을 유지 전망
 -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유조선 수요는 2012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 신규 유조선 유입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가 지속되면서 상황 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주요 해운지수 전망 >

구 분	2011	2012(E)	2013(E)
컨테이너선 [HRCI (1997=1,000)]	763 (38%)	480 (△37%)	550 (15%)
벌크선 [BDI (1985=1,000)]	1,549 (△44%)	900 (△42%)	950 (6%)
유조선 [AG-동아시아(WS)]	53 (△26%)	50 (△6%)	55 (10%)

자료: 실적치는 해양수산개발원,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위 수치들은 기간 중 평균치임.

- (주요 현안) 해운업에는 선제적 선박 투자 재개 가능성, 신시장 진출 모색, 인적 자원의 육성 필요성 대두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
 - (선제적 선박 투자 재개 가능성) 선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향후 경기 회복기에 대비한 선박 투자 재개 가능성이 제기
 - 장기간의 업황 침체로 선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선박 발주가 거의 전무한 상황
 -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가가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선박 투자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존재
 - 특히 고유가 및 환경규제 대비 차원에서 고효율, 친환경 선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도 선박 투자 유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신시장 진출 모색) 신흥지역의 해운 수요 확대 및 특수 화물 시장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 신시장 진출 노력이 예상
 - 신흥지역의 경제 발전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역내 교역 활성화, 아프리카의 해운 수요 확대 등이 관찰
 - 또한 경기 침체를 계기로 식품, 전기·전자부품과 같은 특수 화물의 해운 이용 비중이 확대되면서 해운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
 - 때문에 사업 구조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신흥지역 진출 및 특수 화물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 (인적 자원의 육성 필요성 대두) 해운업 패러다임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적 자원 육성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 향후 환경·안전 규제 강화, 해운업의 선진화 요구 증대, 해운시황의 변동성 확대 등 해운업의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총체적 변화에 대한 기업의 신속한 대응력 확보와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 인력의 중요성이 점증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관련 인력의 자체 육성 노력과 고급 인력의 업계 내 이동 추세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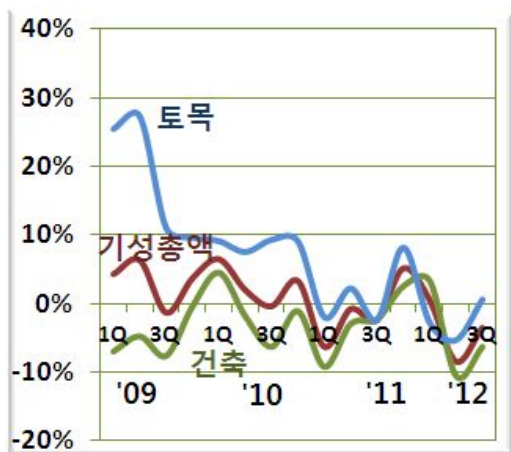
⑧ 건설업

공공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민간 부문은 시장 수급 문제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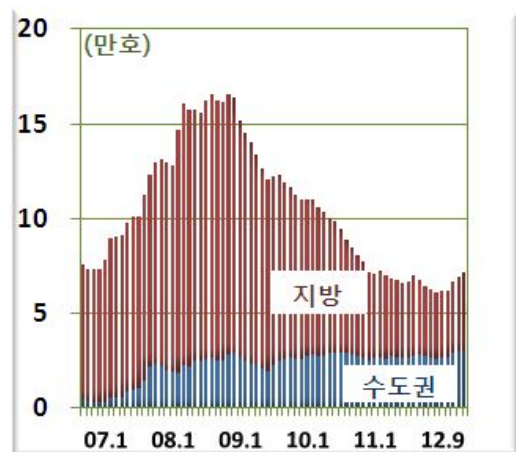
○ (2012년 경기 동향) 건축·토목 부문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주택 문제가 재부상

- (건설기성) 건축·토목 부문의 동반 부진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
 - 건설기성액¹⁰⁾ 증감률은 2011년 전년대비 -1%에서 2012년 1~3/4분기에 전년 동기간대비 -4.0%로 하락
- (주택시장) 미분양주택수가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2012년에 들어 증가세로 전환, 다시 시장 내 수급 문제 우려가 확산
 - 미분양 주택수는 2009년 3월 16만여호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 속에 있었으나 2012년 2분기 이후 빠른 증가세로 전환, 9월 현재 약 7만 2,000여호를 기록
 - 지역별로도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012년 4월 2만 6,000여호에서 9월에 3만 여호로 지방도 같은 기간 3만 5,000여호에서 4만 2,000여호로 급속히 증가

<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



< 미분양주택수 >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기성액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10) 건설기성액은 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통계청).

- (2013년 전망) 공공·토목 부문 경기는 SOC 투자 확대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민간·건축 부문은 시장 수급 불일치 문제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 (공공·토목 부문의 상대적 개선) 정부의 SOC 예산 확대의 영향으로 2013년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액은 전년대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2013년 SOC 예산 계획이 지난 3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3%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 규모가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민간·건축 부문의 부진 지속) 주택시장에서의 수요 부진과 공급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로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
 - 경제 상황 부진에 따른 구매력 개선 미흡, 주택의 여전히 높은 절대적 가격 수준, 가계 부채 문제의 해소 미흡 등으로 건축 부문 내 주택시장(주거용 건축)에서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른 수요 증가 요인 등으로 건축 부문 내 비주거용 건축 경기는 상대적으로 침체 정도가 크지 않을 전망

<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

(단위 : 조 원)

		2011	2012(E)	2013(E)
주체별	공공	28.5 (△ 3%)	29.0 (2%)	30.0 (3%)
	민간	60.3 (10%)	61.0 (1%)	61.5 (1%)
공종별	토목	33.0 (△ 7%)	33.3 (1%)	34.3 (3%)
	건축	60.5 (11%)	60.7 (0%)	61.2 (1%)
전체		93.4 (4%)	94.0 (1%)	95.5 (2%)

자료: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주체별 수주에서 국내 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 제외하였으며,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건설 업계의 구조조정 심화,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확산, 건설업의 돌파구 마련 노력 가속화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건설 업계의 구조조정 심화) 주택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축 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전반적인 경제의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하여 주택 시장의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이 지속되고 있어 민간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주택 시장 장기침체로 주택 건설 중심의 중견기업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건설 업계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존재
 -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확산) 새로운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반면 정책 무용론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
 -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가 침체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정책이나 제도적 여건보다 근본적인 수급 불일치 문제에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회의감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인계 수요원인 가계 신용은 정부의 가계 부채 문제 해소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여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건설업의 돌파구 마련 노력 가속화) 건설업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에너지·환경 분야의 비중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의 노력이 가속화할 전망
 - 건설업은 산업 사이클상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부터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이에 건설업 내에서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적용 구조물의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주요 메이저 기업의 경우 국내 건설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로 신흥개도국 인프라 개발 수요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 **HRI**

산업별 담당 연구원

- 【총 괄】 한상완 산업연구본부장 (swhan@hri.co.kr, 2072-6230)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 【조 선】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 2072-6232)
- 【기 계】 조규립 연구원 (jogyurim@hri.co.kr, 2072-6240)
- 【자 동 차】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2072-6237)
- 【철 강】 김필수 선임연구원 (phil7941@hri.co.kr, 2072-6238)
- 【석유화학】 안중기 연구원 (joonggiahn@hri.co.kr, 2072-6242)
- 【해 운】 전해영 선임연구원 (haloween@hri.co.kr, 2072-6241)
- 【IT 제조】 백다미 연구원 (dm100@hri.co.kr, 2072-6239)
- 【건 설】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2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1	-0.3	-0.4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2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7.8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11월 16일	11월 22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58	1.68	0.10%p
	엔/달러	81.19	80.66	77.66	81.14	82.52	1.38¥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782	1.2842	0.0060\$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588	12,837	249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024	9,367	34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77	2.82	0.05%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092.2	1,085.9	-6.3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860.8	1,899.5	38.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11월 16일	11월 22일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6.63	87.08	0.45\$
	Dubai	88.80	106.75	104.89	107.23	108.74	1.51\$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93.56	297.59	4.0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E)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5	3.5
	민간소비 (%)	2.9	1.6	2.3	1.3	2.9
	건설투자 (%)	-7.1	-3.0	-5.0	-0.2	2.5
	설비투자 (%)	8.9	-1.1	3.7	1.6	5.6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310	260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263	268
	수 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5,488	6,026
		(증가율, %)	23.6	14.9	19.0	-1.2
	수 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5,225	5,758
		(증가율, %)	26.7	20.2	23.3	-0.4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4	2.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3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25	1,09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